

들리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한결같은 전재옥!

1다 전재옥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태안군의회 의원선거 · 태안군 가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 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 력	경 력
1-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욱	여	1963. 7. 22. (62세)	태안군의회 의원	총신고등기술학 교 유아교육과 졸 업(현 백석예술대 학교)	(현) 제9대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 부대변인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01,235	186,757	214,478	해당없음	장남 : 고지거부 장녀 : 고지거부	병역의무 없음	해당없음	장남 : 육군 병장 (만기전역)

3.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해당없음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16,168	243 (26. 1. 14.)	0	
후보자	701	103 (23. 6. 14.)	0	
배우자	1,941	140 (26. 1. 14.)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13,526	0	0	

4. 소명서

정치는 따뜻한 밥상입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에서, 아버지의 거친 손에서 — 참 정치를 배웠습니다.
정치란, 누군가의 식탁에 놓인 한 그릇의 온기를 살피는 일이라는 것을.

의원으로, 부의장으로, 의장으로 지나온 시간 동안
저의 일터는 의회가 아니라 군민 곁이었습니다.

누군가 작아서 차마 꺼내지 못한 말, 누군가 멀어서
미처 닿지 못한 손길 — 거기에 의회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치는 따뜻한 밥상입니다.

숟가락이 모자라지 않게, 국이 식지 않게,
빈자리가 외롭지 않게.

그 '살림' 같은 정치, 다시 이어가고 싶습니다.

전재옥은 새 출발선이 아니라 이음새의 자리에 섭니다.
지난 시간 쌓아 올린 결을 한 켠 더 두텁게 만들겠다는,
완결을 향한 약속의 자리입니다.

들리지 않는 곳의 침묵까지 귀에 담고,
보이지 않는 자리의 그늘까지 눈에 새기는
—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시 군민 앞에 섭니다.



전재옥 **1**다

한 땀 한 땀, 군민 곁에서 빚어낸 8년

하나—발로 듣는 의정

「찾아가는 소통·공감 현장간담회」와 「찾아가는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은 의회의 문턱을 마을 어귀까지 옮긴 시도였습니다. 민원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매듭을 풀고, 숨어 봉사하는 분들을 일터와 경로당에서 직접 예우하며 의회와 군민 사이의 거리를 좁혀 왔습니다.



둘—살피는 의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밤길의 두려움, 화장실의 불안, 디지털 공간의 폭력까지... 「안심귀가 환경조성 조례」 등으로 일상의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등으로 안전망을 촘촘히 했습니다.



셋—떠받치는 의정, 농부의 손길로

벌마늘 한 톨에 깊어가는 한숨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농가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에 맞서 결의문으로 질타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농작업 편이장비 예산을 늘렸습니다.



넷—따져 묻는 의정, 아무진 걸기로

집행부의 거수기도, 무비판적 반대 세력도 아닌 자리. 낭비성 예산을 통째로 잘라내고, 주민이 직접 세금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신고할 수 있는 길을 텃습니다.

‘전재옥표’ 의정활동의 우수성 : 권위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

- 양성평등정책대상 ‘최우수상’ 2년 연속 (2024·2025)
- 2024~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기초부문 / ‘최우수상’ ‘대상’
-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최우수’ · 2024 충남의정봉사대상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

태안의 풍경이 조금씩 바래가고 있습니다

열어지는 마을

학교 운동장은 조용하고, 빈집의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청년의 발걸음은 도시로 향합니다. 인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빠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들녘과 갯가

마늘, 벼, 해산물이 철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이제 기후는 '운'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그 위험을 놓아민 혼자 감내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떠넘겨진 전환의 짐

태안화력 폐쇄. 그 충격을 노동자와 지역에 떠넘기는 셈법은 옳지 않습니다.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함께 답을 찾지 않으면,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벌어지는 일상의 간격

읍과 면 사이에서, 마을과 외딴 마을 사이에서 병원 한 번, 장 한 번 보는 길이 누구에게는 한나절이 걸립니다. 거리는 변하지 않았으나 격차는 매일 커집니다.

무거워지는 어른들의 어깨

100세 시대라는 말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 약을 챙기지 못하는 손길, 말동무가 끊긴 저녁. 이 외로움을 행정·의료·돌봄이 따로 도는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열어지는 것은 다시 진하게, 기울어진 것은 다시 평평하게.
그 일을 해온 사람이 그 일을 더 깊이 이어가야 합니다.



전재옥 **1**다

다시, 가까이서 짓겠습니다

조례한줄, 예산한항목이 곧 누군가의 다음달 살림이 되는 자리.

저는 그한줄과한항목을 화려한 단어가 아니라 군민의 일상 언어로 빚어내겠습니다.

듣는 의회

‘찾아가는 소통’의 길을 더 넓혀, 발길이 닿지 않던 마을까지 의회를 들고 가겠습니다.
들리는 곳의 큰 목소리가 아니라, 들리지 않는 곳의 작은 침묵에 먼저 귀를 두겠습니다.

짓는 의회

지난 8년 빚어낸 조례의 결을 그대로 살려, 빈틈을 잇는 입법을 이어가겠습니다.
새 조례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이미 만든 조례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에
공을 들이겠습니다.

지키는 의회

한 푼의 세금이라도 군민의 이름으로만 쓰이도록 따져 묻겠습니다.
보여주기 사업, 되풀이되는 낭비, 관행 속의 누수,
그 자리에 의원의 ‘빨간펜’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의장’으로 살아온 시간처럼, 일머리는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들리지 않는 곳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지난 의정에서 끌어올린 답을 다음 4년의 약속으로 정리합니다.

새로 꺼내는 공약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약속입니다.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 혁신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 전군민 매월 15만원 지급
- 가로림 해상교량 조속 추진 지속 건의
- 인구소멸 대응 저출산 종합대책 및 실행계획 수립
-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 이불 빨래, 전구·수도꼭지 교체까지 전화 한통으로 방문 처리

농어민이 숨 쉴 수 있게

- 기후재해의 '재난 인정' 기준 정비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의 안정적 제도화와 대상 확대
- 고령·여성 농업인을 위한 소형 농기계·편이장비 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과 항목 확대

어르신께 효도하고

- '태안형 통합돌봄' 체계 완성 위한 제도 정비
- 마을 단위 점심 공동식탁 운영
- 임플란트·틀니의 본인부담 구간을 군 차원에서 보완하는 지원 조례 신설 추진
- 면 단위 의료·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수요응답형 교통 예산 확대
- 빈집을 청년의 살림집으로 잇는 '청년주거 자원순환' 조례 입안
- 어린이·청소년 장학금과 신혼부부 정착비 지원 통합 기금 조성

한 톨도 헛되지 쓰이지 않는 살림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실효성 강화 — 신고 포상·결과 공개 체계 정비
- 보여주기·관행성 사업의 사전 가려내기 제도화

지난 시간이 '다짐'이었다면, 다음 4년은 '완결'입니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부족한 곳은 다시,

새로 닿을 곳에는 처음처럼!

전재옥 **1**다

일머리는 그대로, 마음가짐은 처음처럼

원북의 푸른 들녘에서, 이원의 너른 바다에서, 그리고 태안읍의 활기찬 골목에서
군민 여러분과 손 맞잡고 걸어온 모든 시간이 저 전재옥의 가장 큰 자산이자 나침반입니다.
더 큰 힘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쓰이겠습니다.



화려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한 기록은 아무나 들고 올 수 없습니다.

전재옥은 그 치열했던 이행의 기록을 들고 다시 군민 앞에 섰습니다. 그 기록의 무게만큼 다음 4년의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 더 넓게 듣겠습니다.

— 더 깊게 짓겠습니다.

— 더 야무지게 지키겠습니다.

들리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한결같은 자리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 전재옥이 곁에 있겠습니다.

[약 력]

- (현) 제9대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 (전) 제9대 태안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 제8대 태안군의회 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
- (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 한국여성농업인 충남연합회 부회장
- (전) 한국여성농업인 태안군연합회장

• **사전투표** 5월 29일(금)~5월 30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사무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31-2, 3층

전재옥 **1**다